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지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

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자는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

성 등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착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섣불리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독립 조항으로 신설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부정수급은 어떻게 막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 나열식 규정을 지원 대상·절차·환수 규정을 갖춘 독립 조항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둘째,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을 금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넷째, 「산재보험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갖

췌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 복잡한 '근로자성' 판단 없이도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중복 지원 금지 규정으로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가 명확해져 행정 혼선 없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잘 쓰였는지 철저하게 결산검사” 당부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2일 예

담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김도훈(국민의힘, 비례)·이호동(국민의힘, 수원8)·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명, 재무·예산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남비 사례 등

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도훈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예산안 심의가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설계라면, 결산검사는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완성의 단계"라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 투명하고 철저한 결산검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민수 기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행정체제 개편에 부합한 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필요성 촉구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오는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실행에 들어가는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

하는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시 지역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종료 후 '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3일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취지를 인천시민과 중앙정부, 국회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인천시의 인구 규모와 도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으며, 인구 305만 인천시의 위상에 걸맞는 의원정수 확대와 도시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결의문 낭독은 정해권 의장과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정 의장과 유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은 현 구조에서 인천 시민 주권자 한 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도시지역의 생활·교통·여건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의대회 취지를 밝혔다.

정해권 의장은 "305만 인천시민이 차별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천 시민의 위상 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심하린 기자

하남시의회, 복합특수학급 신설 '한목소리'



동행'의 교육 환경 구축이 필수적임을 피력했다. 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하남형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먼저 금광연 의장이 발언대에 올랐다. 금 의장은 "교산 기업이전부지 개발, 공영주차장 확보가 먼저입니다"를 주제로, 상산곡·광암 기업이전부지 내 주차장 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공영주차장을 '의무 기반시설'로 규정해 충분한 주차 면수를 확보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정병용 부의장은 "인사가 만사...하남시, 인사가 망사"라는 제하의 발언을 통해 하남도시공사와 하남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장의 반복되는 인사 잦음을 질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부터 도시 개발의 필수 기반 시설 점검까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라며 "집행부는 의결된 건의안과 조례, 그리고 의원들의 제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2026년이 하남의 도약을 이끄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민수 기자

시흥시의회,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대표발의: 김수연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물리적·심리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여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향과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 마련 및 추진위원회 구성 ▲무장애 시설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참여 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우수 사례와 시흥시의 현장 실태를 공유하며,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시흥시의회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도시정책·교통 등 관계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적극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이지는 취지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실행력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천시의회, 추위로 녹이는 따뜻한 배식 봉사



더했다.

단순한 봉사를 넘어 이용자들의 일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생활 속 불편함과 건의 사항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지역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복지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며 더 나은 복지환경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명서 의장은 "명절이 다가오면 누구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한다"며, "앞으로도 이천시의회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 곁을 지키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와 나눔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송민수 기자

